

## I 기관 돋보기 | 청주YWCA 상록수

### ‘한부모가족의 든든한 울타리’

청주시 남이면에 위치한 사단법인 청주YWCA 상록수(원장 이애선)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모자가족복지시설로 2002년 12월에 설립되어 만 18세 미만의 이동을 양육하는 한부모 저소득

모자가족에게 주택(3평 아파트)을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무료로 제공하며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이밖에, 부모 교육, 전문 상담, 문화체험, 자립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에 건강한 자립과 사회성 형성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설립 이래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2006년, 2009년, 2012년, 2015년, 2018년, 2021년 총 6회 연속 모두 A등급을 받으며 충북도 내 최우수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편집자주)

2006년부터 6년 연속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 A등급을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청주YWCA 상록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모자가족복지시설로 2001년 5월 삼포건설로부터 아파트 9채를 기증받아 2006년 한국 여성복지연합회에 가입하고 2007년 1월 기존 정원 5세대에서 7세대로 확장 인가를 받아 현재는 모자가족 6세대를 운영하고 있다.

9채 중 2채는 사무실과 프로그램실로 이용하고 있으며 7채는 모자가족의 생활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청주YWCA 상록수는 소규모 시설로 원장 1명, 생활복지사 1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모자가족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3년에서 5년



상록수 입소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 6년 연속 전국사회복지시설 최우수기관 선정 학습·양육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로 자립 도움

까지 무료로 주택을 제공해 생활공간을 마련하는 등 자립 이전까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입소 어머니를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서비스에 중점을 두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입소기간 동안 독립된 공간에서 거주하며 중단됐던 학업에 대한 학습지원,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부모교육, 가사교육, 양육지원, 상담과 문화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추진하며 자립을 돕고 있다.

아울러 모법인인 청주YWCA에서는 상록수 운영을 위해 2002년부터 위원회를 조직하여 투명한 회계관리, 입주자들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명절 등 가족 문화 활동에 필요한 후원 등 사업 시설 운영에 실질적인 지원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애선 원장은 “우리 시설에 입소자로 입주했던 어머니 한 분이 입소 당시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를 성실히 수행하시며 특수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어 특수교육학과에 진학해 현재는 교사가 되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한부모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어 원장으로서 보람됐던 사례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좋은 사례를 직접 마주할 때면 담당자에게 큰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다”며 “좋은 성장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도록 한부모

가족들에게 길잡이가 되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록수는 사회복지시설 중 작은 소규모 생활시설로 입소 현원에 따라 운영비가 책정되고 있지만, 책정되는 운영비만으로는 시설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현재 많은 부분을 후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일과 자녀양육을 병행하고 있는 모자가족에게는 생계비 추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모자가족은 어머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어머니의 삶이 변하게 되면 자녀성장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를 위해 입주한 어머니들이 삶을 능동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자립역량 강화를 돕는 적합한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사업비를 마련하는 등 지원체계 시스템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설립 이후 지난 20년 간 6회 연속 최우수기관(A등급) 선정이라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후원자, 자원봉사자 그리고 입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올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록수는 입소자들을 입소한 순간부터 내 가족처럼 여기며 닫힌 마음을 열어 사회로 나가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설의 목표다. 이에 한부모가족의 건강하고 안정된 자립 기반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설 이용자들이 감자캐기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상록수 시설 이용자들이 원예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2022년 충북청년프렌즈 발대식이 지난달 3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 충북도, 청년프렌즈 발대식... 청년들과 소통

#### 청년 100명과 청년공감 특강... 도지사와 토크쇼·레크리에이션

충북도가 주최하고 충북청년희망센터가 주관하는 2022년 충북청년프렌즈 발대식이 지난달 3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발대식에서는 청년정책을 제안하는 청년광장, 청년 이슈 및 정책을 홍보하는 서포터즈 기자단, 축제를 기획하고 참여하는 청년축제 추진단, 시·군 청년활동가 양성을 위한 지역 청년활동가,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 단체, 충북청년희망센터 입주기업 및 청년농업인 등 청년 10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

었다. 특히 이번 발대식은 청년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청년실태와 문제에 대한 의견을 직접 제시하고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소통의 장으로 앞으로 청년들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환 도지사는 “청년들의 꿈과 희망 없는 충북에 미래는 없다”며 “충북도는 청년세대의 고민을 이해하고 청년들과 적극 소통할 것이며, 여러분들의 잠재력과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달 28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명예회장으로 위촉했다.

###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영환 도지사 명예회장 위촉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예회장으로 위촉됐다.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노영수)는 지난달 28일 충북도지사실에서 김영환 도지사에게 명예회장 위촉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은 김영환 도지사, 노영수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위촉식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관(제2장 제12조)에 의하여 명예회장을

추대할 수 있어 마련됐으며, 김영환 지사는 앞으로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며 모금 홍보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노영수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도지사님을 추대하게 돼 영광”이라며 “앞으로 복지강화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며 밝혔다.

김영환 도지사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두고 모금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도서출판 유한사

28505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85 (우암동 224-6)

285, Daeseong-ro, Cheongwon-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TEL:(043)255-0504, 253-0504 FAX:(043)222-0504

H.P: 010-9566-0504 E-mail:youhansa@hanmail.net

각종 교육 교재  
책자제본·스프링제본  
칼라복사·칼라출력  
대형코팅·현수막출력  
대형칼라흑백출력

## 복사-출력 및 제본의 명가

# 청주시 가족센터 10월 문 연다

120억원 투입... 모충동 일원 전체면적 3718㎡ 규모 건립  
가족복지 플랫폼... 서비스 지원·정보교환의 장으로 활용



10월 준공을 앞둔 청주시 가족센터 전경.

청주시 가족복지 플랫폼으로 서비스지원과 정보교환의 장으로 활용될 가족센터가 10월 문을 연다. 시는 120억원을 들여 2020년 11월부터 서원구 모충동 94-9번지 일원에 지상 4층, 전체면적

3718㎡ 규모의 청주시 가족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상 1층은 주차장, 지상 2층은 사무공간과 공동육아나눔터, 다문화가정의 조기정착을 위한 상담실, 한국어교실이 들어선다. 지상 3층은 가족돌봄 기능을

담담할 아이돌봄 사무실과 다양한 가족의 소통 및 교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대강당으로 구성돼 있다.

지상 4층은 내방객과 교육생의 편의 제공을 위한 구내식당과 결혼이주여성 교류의 장으로 활용될 요리교실 등이 들어선다. 시 관계자는 "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적·사회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주시, 교통약자 위한 '해피콜' 확대 운영

노후 차량 5대 교체·9대 증차 등 60대 운행

청주시는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복지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해피콜'을 확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올해 노후화된 차량 5대를 교체하고, 9대를 증차해 총 60대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용 수요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정기적으로 장애인차별 철폐연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 참여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

선 방안 간담회를 실시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교통약자의 입장에서 교통편의 증진 개선에 힘쓰고 있다. 한편, 작년 9월 충북 최초로 도입한 바우처 택시가 교통약자의 발 빠른 이동수단으로 특화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바우처 택시는 평상시에는 일반

택시 영업을 하다가 교통약자의 이용신청이 있을 경우 비활제어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이다. 청주시에 따르면 바우처 택시 도입 후 해피콜 배차 대기시간을 평균 30분대에서 20분대로 크게 단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시는 내년에도 해피콜 차량 15대를 증차할 계획이며, 바우처 택시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배차 대기 시간 개선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향상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제천시를 비롯한 세명대학교, 대원대학교, 제천단양상공회의소와 지역 내 대표 9개 기업 대표들이 맞춤형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화이팅하고 있다.

## 제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대학·기업과 협약

지역대학·기업과 협약... 상생 발전 협력체계 구축

제천시가 세명대학교, 대원대학교, 제천단양상공회의소와 지역 내 대표 9개 기업과 맞춤형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상생발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산·학·

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산·학·관이 협력해 지역 산업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인구의 지역 정착 장려

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시는 '역동적이고 새로운 경제도시 제천 건설'을 위한 적극적 경제 활성화 추진 의지를 담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산·학·관의 상호 상생협력을 추진해 지역의 지

속가능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경제활동 촉진, 생활인구 확대,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주)일진글로벌, 아세아시멘트(주), (주)유유제약, (주)휴온스, 대림비앤코(주), (주)씨엔에스푸드시스템, (주)에이치엔에스, (주)인팩, 코스맥스바이오(주) 등으로 제천시 기업을 대표했다.

## 찾아가는 장애인 평생학습 사랑방 접수

충주시, 10월 14일까지, 6개 분야 57개 프로그램

충주시는 '2022년 하반기 찾아가는 장애인 평생학습 사랑방'을 추진한다. 이번 찾아가는 장애인 평생학습 사랑방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찾아가는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해 기획됐다.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장애인 학습

팀과 강사를 연결해 학습희망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강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강사는 어학, 건강, 음악, 미술, 인문교양, 부모교육 등 총 6개 분야 57개 프로그램이다. 강좌 운영은 최대 8~12회(1회당 2시간)이다. 신청대상은 장애인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학습 소모임이다.

수강료는 무료지만, 프로그램에 필요한 교재비 및 재료비는 본인부담이다. 접수기간은 10월 14일까지다. 신청을 원할 경우 충주시 평생학습관

### 충북사회복지신문

발행인 김 영 석 사회복지 출판·홍보위원장 박 상 준 (2858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전화 : 043-234-0840 FAX : 043-234-0849 E-mail : cbvms043@naver.com 홈페이지 : www.cwin.or.kr

## 진천군, 재택의료센터 개소... 재가서비스 추진

진천의원서 노인 방문의료  
요양·돌봄 등 통합사례관리



송기섭 진천군수(왼쪽 세 번째)와 박재영 원장, 장동현 군의장 등이 지난 29일 진천의원 재택의료센터 헌판식을 갖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진천군은 지난 29일 진천의원 원과 함께 생겨진 재택의료센터 개소식을 갖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재택의료센터사업은 장기요양 1~4등급자 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원 진료가 어려운 의료사각지대 노인을 대상으로 다학제 팀(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이 주기적으로 방문해 진료·간호와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다. 군은 보건복지부 지역사회통

합돌봄 보건의료 특화 프로그램으로 국·도비 포함 3억원을 확보하고 민간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해 진천을 진천의원(원장 박재영)을 재택의료센터로 선정했다.

군은 2019년 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에 선정돼 퇴원환자 발굴·관리 전담팀을 구성해 지난 11월 기준 674명에게 6504건의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

## 음성군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조성 시동

외국인지원센터와 협약... 평생학습도시 시군2 추진



음성군이 일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와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복지향상을 위한 협약을 하고 있다.

타와 협약하고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추진을 위한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복지향상 이행을 약속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추진을 위한 협력사업 외국인 주민 대상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상호 협력, 외국인 주민의 평생교육 활성화 협력, 양기관의 대외 홍보에 대한 공동 협력 등이다.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는 2년마다 3개 도시만 가입할 수 있어 경쟁이 치열하다. 우리나라에선 2021년 11월 기준 53개 시·군·구가 가입해 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글로벌 학습도시 구축을 민선 8기 공약으로 내세웠다. 군은 2013년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첫 지정 받은 뒤 다양한 평생학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내 최초 2개의 평생학습관을 건립했고, 충북혁신도시 일원에 공영평생학습관도 건립 중이다. 지난 4월에는 평생학습도시 재지정도 받아 뉴라이프 아카데미 교육과 지역공동체 창업 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음성군이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군은 1일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 충주시-중앙로타리클럽-성모안과, 취약계층 안과치료 업무협약

70명 백내장·황반변성 치료비 1천590만 원



조길형(왼쪽 두번째) 충주시장과 충주중앙로타리클럽, 충주성모안과 관계자들이 4일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안과 질환 치료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충주시는 충주중앙로타리클럽, 충주성모안과와 4일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안과 질환 치료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지역 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 중인 만 60세 이상 백내장

및 황반변성 질환이 있는 저소득 70여 가구에 총 1천59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 지참해 집중 신청기간(8.4~9.30)동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청자 중 지원조건 확인 후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국제로타리3740 지구 7지역 충주중앙RC에서 주관하고, 예성RC, 국원RC, 충주 남산RC 등이 공동 참여했으며, 사업비는 지구보조금과 참여 클럽 회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마련됐다.

"마이는 나눔 사랑의 실천" 푸드뱅크가 함께합니다. 모두와 손잡고 나눔의 세상을 만듭니다.

기부혜택  
기업 및 개인이 푸드뱅크·마켓에 식품·생활용품 등을 무상으로 기부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해 100%~10% 범위 내에서 세제혜택을 받습니다.

식품별 모집 가능기한			생활용품별 모집 가능기한		
구분	기부 식품군	모집 가능기한	구분	종류	모집 가능기한
가공 식품	제과류	스낵, 사탕, 껌, 초코렛 등	세제류	세면용 세제, 샴푸, 린스	최소 90일 이전
	즉석식품	면류(라면, 소면, 스파게티 등), 즉석밥, 죽 등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욕실용 세제	최소 60일 이전
	냉동식품	아이스크림, 케익, 비닐포장, 스테이크 등	휴지류	화장지	최소 60일 이전
	통조림	참치, 정조림, 과일통조림 등	수건류	물휴지	최소 90일 이전
정류 및 식용류	정류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 등	기저귀류	수건, 종이 수건, 손수건, 행주	최소 60일 이전
	소스류	드레싱, 고기양념류 등		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최소 60일 이전
음료류	기름류	식용유, 참기름 등	신체 위생용품류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최소 90일 이전
	음료류	주스, 탄산음료, 멸균우유, 건강음료(홍삼) 등		머리빗, 면도용품, 손톱깎이	최소 60일 이전
신선 식품	육가공류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여성 위생용품류	생리대	최소 60일 이전
	농산물	두부, 순두부, 콩나물, 호박, 파, 김치류 등		청소·환경 위생용품류	고무장갑,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통, 수세미
제빙류	각종 슈퍼마켓, 제과점 병류		가정용 살충제	최소 90일 이전	

충북광역기부식품지원센터 (충북광역푸드뱅크)  
기부방법  
043) 234-1377  
광역 대량 기부  
전국 어디서나  
1688-1377  
지역 소량 기부

# '옥천 행복나눔 푸드뱅크마켓' 새단장

### 행복나눔마켓·푸드뱅크 통합 원거리 대상자에 직접 배달

옥천행복나눔마켓이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옥천행복나눔 푸드뱅크마켓'으로 새롭게 통합 운영된다.

군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부터 옥천행복나눔마켓을 옥천 푸드뱅크에서 흡수·통합해 배달과 방문을 통한 기부식품을 제공하는 '옥천행복나눔푸드뱅크마켓'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됐다.

행복나눔마켓은 옥천군과 옥천지역자활센터, 옥천군푸드뱅크가 민·관이 협력해 지난해 4월 나눔 냉장고로 시작해 마켓을 방문하는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번 통합 운영에 따라 체계



지난달 22일 행복나눔마켓에 매일 정기후원을 하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 옥천군협의회가 라면과 커피믹스, 마스크 등 260만원 상당을 후원했다.

적으로 운영되던 옥천군푸드뱅크의 인력, 물품 관리 운영시스템(FMS), 차량, 냉장·냉동 설비 등을 활용해 기부식품 제공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졌다.

특히 푸드뱅크 차량을 통해 마켓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졌던 먼 거리 거주 청산·정성면 대상자에게도 직접 가져다주는 배달서비스 전달체계까지 마련해 기부식품 나눔 활성화가 기대가 커졌다.

옥천군 통합복지센터 1층에

위치한 행복나눔푸드뱅크마켓에는 지난 6월까지 현금을 포함한 생필품이 6300만원 상당의 금액이 기탁됐으며, 기부식품 나눔은 물가 상승으로 생활이 더 어려워진 이웃의 생활 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행복나눔마켓에 매일 정기후원을 하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 옥천군협의회(회장 공진표)에서 라면과 커피믹스, 마스크 등 260만원 상당을 후원하면서 행복나눔푸드뱅크마켓의 통합 운영의 시작을 함께했다.

황규철 군수는 "자발적인 나눔을 실천하는 후원 기관·단체·기업에 감사 드린다"며 "고물가 시대에 기부식품 나눔은 단비와도 같다. 많은 이웃이 나눔에 동참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옥천군, 도내 최초 향수시네마 '치매 愛 안심극장' 지정

### 11월까지 치매 극복 영화 상영, 치매 관련 특강 열려

옥천군치매안심센터는 도내 최초로 지역주민들의 여가 문화 생활을 지원하고, 함께 어울려 치매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치매 愛 안심극장을 운영한다.

대상은 관내 치매·경도인지장애 진단자, 가족과 지역주민이며, 운영 기간은 7월부터 11월까지 3회에 걸쳐 치매 극복 영화 상영, 영화 해설과 치매 관련

특강을 진행한다.

지난달 26일 충북광역치매센터와 함께 향수시네마를 '치매 愛 안심극장'으로 지정하는 행사를 열었다.

이날 황규철 군수를 비롯한 군의원, 지역주민 등 70여 명이 '치매 愛 안심극장' 지정 현판식과 카시오편아 영화 상영 행사에 참석했다.

영화 상영 전 간단한 영화 해

설과 충북광역치매센터장의 치매 관련 특강도 함께 이루어져 지역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상영된 영화 카시오편아는 젊은이에게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는 아빠 '인우'와 딸'수진'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이다.

이번 영화를 시작으로 총 3회 무료로 상영 예정이며,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준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울림을 줄 수 있는 영화를 제공할 계획이다.

영화 관람 참석자들은 "오랜만에 영화 관람이라 더 즐거웠고, 치매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옥천군 치매 등록현황은 1천542명으로 치매 추정자(1천875명) 대비 82.2%의 등록률을 보이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영화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을 위한 여가 문화 생활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치매 인식 개선을 통해 치매환자와 함께하는 지역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황규철 군수를 비롯한 군의원, 지역주민 등이 '치매 愛 안심극장' 지정 현판식을 가졌다.

# 제1기 괴산군청소년참여위원회 모집

### 오는 31일까지 20명

괴산군이 제1기 괴산군청소년참여위원회를 위원을 모집한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의 정책 참여 활동의 실질적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구성·운영되는 위원회이다.

군은 청소년들이 자치단체 정

책 및 사업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함으로써 지역 청소년 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권익 증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위촉일로부터 1년간 활동한다.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안전 제시, 청소년 관련 행사 참여, 청소년 참여기구 간 교류 활동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참여대상은 괴산군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9~24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20명 이내 선발한다.

신청 접수는 8월 31일까지 괴산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 또는 괴산군청 주민복지과 방문·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장병란 괴산군 주민복지과장은 "청소년의 빛나는 아이디어

창취를 통해 괴산군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를 되길 바란다"며 "청소년이 주인공이 될 이번 청소년참여위원회 모집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소년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청 여성친화팀(043-830-3415)으로 문의하면 된다.

# 괴산군, 9월부터 아동급식 카드 도입 추진



17일 괴산군청 군수집무실에서 송인환(왼쪽) 괴산군수와 김정태 NH농협은행 괴산군지부장이 아동급식카드사업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

### 지류식 괴산사랑상품권에서 카드로 변경... 단점 보완

괴산군은 17일 아동급식카드 사업을 위해 NH농협은행 괴산군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NH농협은행 괴산군지부는 괴산군 아동급식관리 시스템 유지와 관리를, 괴산군은

대상자 선정과 변동관리 등의 행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이 사업은 그간 지류식 괴산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일 상품권 수령을 위해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적잖았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군은 NH농협은행 괴산군지부와 협약 체결을 통해 오는 9월부터 아동급식카드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아동급식카드는 일반 체크카드 디자인을 적용한 IC방식카드라 저소득 결식 우려아동 380여 명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충전이 간편하고 제3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어 대상아동들의 소외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사용처는 기존 BC카드 가맹점이면 사용이 가능하지만 아동급식과 관련 없는 가맹점(술집 등)에서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아동급식카드 도입으로 기존 지류식 상품권 지급방식에 대한 단점을 보완했다"며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라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보은군, 다함께돌봄센터 조성 추진

### 건물 무상 임대자 모집... 7000만원 지원

보은군은 맞벌이 가정의 증가에 따른 마을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 구축에 나섰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만 6세에서 만 12세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소독과 상관없이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

설치 후에는 운영비가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충북도에는 26개소가 운영중이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 지

역의 유휴공간과 자원을 활용, 소통을 기반으로 한 사업이라는 점에 사업의 의의가 있다.

보은군에서는 최초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나 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무상 임대를 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

군은 현재 맞벌이가정 증가로 방과후 돌봄센터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체계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문면적이 최소66㎡ 이상이며(1인당3.3㎡) 아동들의 안전이 확보된 공간이라면 10년 이상 무상임대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건물 리모델링 및 장비구입으로 7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오는 31일까지 공고 기간을 거쳐 설치장소 무상 임대 대상으로 선정되면, 올해 안에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맞벌이가정 증가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돌봄센터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 증평군, 사회적 약자 노후 전기설비 개선

### 74세대 대상 누전차단기·스위치·콘센트 등 교체작업

증평군은 지역 내 취약계층의 전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말부터 '2022년도 사회적 약자 노후 전기설비 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초생계급여자와 차상위, 저소득층

등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누전차단기, 스위치, 콘센트, 등기구 등 가정 내 전기 안전(화재)과 연관된 생활 전반적인 부분을 점검 후 미비한 부분을 집중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군은 각 읍면 산업팀의 협조를 통해 1차 수요조사 후 대상

자를 선정했으며, 이달부터 8500만원(기금 40%, 군비 60%)의 사업비를 투입해 74세대에 노후 전기설비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충북도가 제안한 '사회적 약자 노후전기 개선사업'이 정부의 복권기금운영계획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2022년 복권기금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화재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청주시 보건의, 영유아 보청기 구입비 지원

### 양측 개당 131만원 한도

청주시는 각 보건소를 통해 영유아 청각재활을 위한 보청기 구입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영유아 보청기 지원 사업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미

만이며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양측 보청기가 지원되며 개당 131만원 한도다.

지원을 받기 위해선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또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 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 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된다.

보청기를 처방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사 확인을 원칙으로 한다.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상당보건소(043-201-3165), 서원보건소(043-201-3272), 흥덕보건소(043-201-3367), 청원보건소(043-201-3465)로 문의하면 된다.

## 충북사회복지신문

### 광고 게재 안내

충북사회복지신문은 사회복지기관 및 관련단체, 시민단체, 병원, 학교,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일반시민 등 전국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이슈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싶은 분은 적극적으로 충북사회복지신문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면	크기	배색	금액(원)
1면	4단 (360mm×138mm)	컬러	300,000
	제호 옆 돌출 (67mm×33mm) (3개월)	컬러	100,000
2면~7면	4단 (360mm×138mm)	흑백	200,000
8면	4단 (360mm×138mm)	컬러	250,000

게재 개월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김솔지 대리 (T.043-234-0840~2)



# 음성외국인지원센터 사회통합거점 ‘자리매김’

### 올 상반기 6개 분야 18개 지원사업... 목표대비 107% 실적 한국어교육 세분화 지원, 안정된 정착 위한 소통 ‘운힘’

음성군 외국인지원센터(센터장 박한교·이하 센터)는 올 상반기 6개 분야 18개 지원 사업을 추진해 상반기 목표대비 107%의 실적을 거뒀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실적 대비 338%가 향상된 실적을 거두었으며 6월말 현재 3744명이 상담과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가 올해 법무부가 주관한 이민자의 귀화·영주를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총복에서 유일하게 중국동포, 고려인동포, 밀집지역 외국인을 대상으로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돼 이들의 참여도가 높았

다.

한국어 교육도 지난해보다 수준별로 더 세분화해 지원하였으며 그동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다소 주춤했던 문화사업 프로그램들이 방역수칙의 완화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비자갱신 등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노무와 관련된 노동법, 산업안전과 재해예방을 위한 법률과 산업안전교육 등을 실시해 이들의 권익보호와 안전한 한국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센터는 지난 2020년 개소와 맞물려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진행하지 못하였던 ‘세계인의 날’ 행사를 지난 6월 12일 금양

읍 금빛근린공원에서 ‘더불어 함께 행복한 음성’이라는 슬로건으로 성황리에 개최해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돼 심신이 지쳐있던 외국인주민과 지역주민에게 화합의 한마당과 일상생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또 일선 학교의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각종 안내문, 음성소방서의 구급 문진표, 음성군청 농정과에서 주관한 계절근로자 대상으로 교육에 필요한 통역과 자료번역, 기업체와 병원의 통역 의뢰에 따른 통·번역지원을 통해 외국인주민을 위해서는 안정된 정착을 지역사회를 위해 이들의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차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센터는 음성군 새마을회와 금양읍 행정복지센터, 금양읍 5개

단체와의 협약으로 평화로운 공동체 구현 및 건강한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연대활동의 기틀을 마련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진행된 18개의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상반기에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대면수업으로 전환돼 센터에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한교 센터장은 “4월 부임 후 세계인의 날 행사 추진, 17개 기관 및 단체와의 업무협약, 후원회 결성 등 센터의 안정된 기반 마련과 외연 확장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며 “센터가 설립 목적대로 외국인주민의 안정된 정착과 복지를 위한 지원 및 사회통합거점센터로서의 역할을 더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 미흡한 부분은 계속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 청주점 사랑나눔 플러스’ 봉사단이 지난 3일 청주가경노인복지관과 어르신들을 위한 후원품을 전달했다.

## “어르신들 따뜻한 한 끼 드세요”

### ‘홈플러스 청주점 나눔 플러스 봉사단’ 후원품 전달

홈플러스 청주점 나눔플러스(이하 나눔플러스) 봉사단은 지난 3일 청주가경노인복지관(관장 김현숙)과 함께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후원품 전달과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나눔플러스 봉사단 18명은 청주가경노인복지관을 방문해 90만 원 상당의

쌀을 후원하며, 복지관 내 경로식당 대청소 및 조리과 배식 봉사활동까지 진행했다.

나눔플러스 봉사단원들은 “무더운 날씨에 온종일 구슬땀을 흘리며 기부물품 전달과 어르신들이 따뜻한 한 끼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배식봉사활동에도 참여

하며 봉사단원 모두에게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현숙 관장은 “나눔플러스 봉사단과 같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봉사단체에서 매 월 정기 봉사활동으로 나눔을 실천해 주어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우리 지역 사회가 살아 숨 쉬고 있음 느낄 수 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청주가경노인복지관은 경로식당을 운영하며 매일 15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 “충북지역 학생 건강한 성장 지원”

### (주)에스에스케이, 도교육청 방문 유기농 여성용품 기부

(주)에스에스케이는 16일 충북도교육청을 방문해 유기농 여성용품 2658팩(날개 3만3660개 1800만원 상당)을 기부했다.

기부식에는 윤건영 충북교육감, 이지연 (주)에스에스케이 대표, 김경배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주)에스에스케이는 도내 고등학생의 성장 발달 지원을 위해 유기농 순면커버 여성용품 2658팩(날개 3만3660개, 1800

만원 상당)을 충북교육청에 전달했다.

도교육청은 기부 받은 여성용품을 교육지원청을 통해 도내 고등학교에 배부할 예정이다.

(주)에스에스케이는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여성용품 제조사로 100% 유기농 인증을 받은 미국 텍사스산 목화를 사용해 유기농 순면 여성용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지연 (주)에스에스케이 대표는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이지연(왼쪽) (주)에스에스케이 대표가 윤건영(가운데) 충북교육감과 김경배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회장에 여성용품 2658팩을 전달하고 있다.

위해 유기농 여성용품을 기부하게 돼 기쁘다”며 “유기농 여성용

품이 필요한 충북 도내 학생에게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 생활안정자금 전달

### 청주시 흥덕구에 1천400만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차용기)는 9일 흥덕구청에서, 청주시 흥덕구(구청장 이재숙)에 후원금 1천 4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청주시 흥덕구 내 청각장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아동 납매 가정의 생활안정자금 마련을 위해 온라인모금 ‘해피빈’을 통해 두 달간 모금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총 1천457만5천700원이 모금되었다.

아동 가정에서는 해당 후원금을 재활치료비 및 의료비, 생계비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재숙 구청장은 “청각장애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는 9일 흥덕구청에서, 청주시 흥덕구에 후원금 1천 400만 원을 전달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납매가 치료를 지속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라며 “흥덕구 지역 아

동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기부美’ 1차 모금액 달성 대상자에 300만원 지급

### 청주복지재단, 청주페이 전달 조순·한부모 2가구 선정

청주시와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은 지난달 27일 청주페이 앱 ‘기부美’ 1차 서비스 대상자 중 모금 목표액이 달성된 조순, 한부모 2가구에 대해 각각 300만 원이 충전된 청주페이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청주시와 청주복지재단은 지난달 27일 청주페이 앱 ‘기부美’ 1차 서비스 대상자 중 모금 목표액이 달성된 조순, 한부모 2가구에 대해 각각 300만 원이 충전된 청주페이를 전달했다.

명의 기부자가 참여해 6월 21일에 각각 목표액을 달성해 기부가 종료됐다.

조순가정은 1차로 모금이 종료될 만큼 청주시민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얻은 사례로 27일 청주시와 청주복지재단이 함께 조순가정을 방문해 3백만 원이 충전된

청주페이를 전달했으며, 한부모 가정에도 청주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3백만 원의 청주페이를 전달했다.

청주페이를 전달받은 조순가정은 “높은 물가로 어려운 시기에 아이의 학원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어 무더운 여름을 걱정 없이 보낼 수 있게 되었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또한, 한부모 가정도 “아이들의 심리치료를 위한 심리상담센터 비용으로 청주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청주시와 청주복지재단 관계자는 “1차 기부美 대상자에게 사랑과 관심으로 후원해주신 모든 시민분들께 감사드리며, 1천원의 작은 정성이 모여 큰 기적을 만들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 충주종합사회복지관, 사회적돌봄사업 ‘영케어러’ 시작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국기획사업... 가족돌봄 부담 완화

충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광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전국기획사업 선정에 따라 최대 3년간 ‘영케어러’ 사회적 돌봄 사업을 실시한다.

‘영케어러’는 장애, 질병 등의 어려움을 지닌 가족·친척을 직접 돌보는 10대~만 39세 이하의 청소년 및 청년을 말한다.

복지관이 추진하는 영케어러 사업 ‘부모의 부모가 되다’는 진

학, 자기계발,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는 영케어러의 가족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복지관은 사업을 통해 충주시에 거주하는 영케어러 20명에게 가족돌봄비 240만 원, 자기돌봄비 50만 원, 개별맞춤지원비 15만 원 등 총 305만 원을 1회 지원한다.

단, 가족돌봄비는 간병비로만 사용 가능하며, 영케어러가 이용

하는 간병 기관에 직접 지원될 예정이다.

신청은 충주종합사회복지관으로 전화, 방문, 카카오톡 채널 채팅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회복지관은 접수된 신청자 중 지원요건을 확인 후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광훈 관장은 “어린 나이에도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청소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사업 운영에 각별히 신경쓰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 “생애주기별 검색이 편합니다”

**01**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 고용및직업
- 주거지원
- 보육및교육
- 의료및건강
- 요양및돌봄**
- 정신및심리정서지원
- 문화및여가
- 권익보장및법률
- 일상생활지원
- 기타

**02** 지역을 선택합니다

- 청주시
- 충주시
- 제천시
- 보은군
- 옥천군

**03** 생애주기를 선택합니다

- 영유아
- 아동
- 청소년
- 성인
- 노인**

**04** 서비스를 확인합니다

행정복지센터/노인돌봄서비스/종일/노인

노인종합복지관/9988행복나눔미/종일/노인

노인요양병원/노인장기요양서비스/종일/노인

서비스제공기관, 서비스명, 이용시간, 이용대상 까지 한번에 검색되는 ‘충북복지넷’

**충북복지넷**  
www.043w.or.kr



복지광장

MZ세대와는 어떠한 방법으로 일을 해야 할까?

복지포럼

우리는 코로나19 이전 일상으로 갈 수 있을까?



김창수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부장

몇해 전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운영한 적이 있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대상자들은 이전에 갖지 못했던 의미와 알찬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고 했다. 집에서 TV 등으로 시간을 보내던 발달장애인은 복지관의 평생교육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게 된 것이다.

인생에서 하루는 얼마나 중요할까? 내가 보낸 오늘 하루는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을까? 시인 헤라클리투스는 "하루는 매일과 같다"고 말했으며, 이는 하루의 길이는 늘 같고, 같은 만큼의 시간으로 이루어져 같은 해가 뜨고 진다는

의미였다. 인생 또한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낸다면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멋진 표현인 것이다.

의미 있는 하루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얼마 전부터 우리 복지관에 입사한 90년대생 직원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90년대들과는 어떠한 방법으로 일을 해야 할까?"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기 시작한 MZ세대! 그러나 우리 복지 현장에서 MZ세대와 소통하는 데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신입 사회복지사들이 많다고 한다. 나와 같은 기성세대들은 MZ세대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기성세대가 MZ세대들과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한다.

MZ세대란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를 합쳐 부르는 말로, 1981년부터 2010년에 출생한 세대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MZ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디지털 네이티브, 즉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을 접해왔다는 것이다. 그 영향으로 MZ세대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고 디지털 문화를 향유하는 데에 매우 익숙하다. 특히 자신만의 개성을 중시하고 재미를 추구하며, 자유롭게 생각하고 사생활을 존중받기를 원하는 성향이 있다.

오늘날 사회의 소비 및 경제활동의 주체로 떠오르고 있는 MZ세대!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이런 MZ세대의 특징은 몇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사생활을 존중해 주세요" 시장 조사업체 오픈서베이에 따르면 MZ세대의 55.4%가 카카오톡이 업무용으로 쓰이는 데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반해 연령이 높아질수록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도 적게 나타났다. 업무와 사생활의 구분이 MZ세대에게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직원들 간의 교류와 친목도모를 위해 실시하는 업무시간 외의 회식 또는 사생활에 대한 질문 역시 피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MZ세대 복지사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고, 개인에게도 의미 있는 일하기를 희망한다. 아마도 복지관이 자신이 원하는 가치관과 충분히 부합된다고 생각하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할 것으로 보여진다. 공정한 보상 또한 중요한 가치이다. 자신의 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MZ세대는 일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셋째, "수평적으로 소통해 주세요" MZ세대에 대한 오해 중 가장 큰 것은 소통하기 싫어한다는 것임이다. 수평적이고 보다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한 선임 복지사

나 팀장과의 소통을 원하고 있다. 무엇보다 자신의 성장을 위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원하는 세대이다. MZ세대에게는 무작정 자리로 불러 얼굴을 맞대고 긴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 온라인상의 메신저나 메일 등을 통해 빠르고 명확한 피드백을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복지관과 함께 성장하는 MZ세대" MZ세대는 '나'와 복지관을 분리하여 생각하며, 개인의 행복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MZ세대에게 사회복지관은 함께 성장해 가는 파트너라고 생각한다. 워라벨을 자유로운 휴가라고 생각하는 기성세대와 달리, MZ세대는 '정식퇴근'을 워라벨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2030 세대를 일컫는 MZ세대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에 대한 애정을 갖고 복지관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은 새로운 세상과 친해지는 과정이며, 의미 있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주위의 MZ세대 복지사들이 있다면 파스한 격려와 소통으로 아름답고 멋진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

이렇게 성장한 MZ세대 복지사들은 우리 클라이언트들에게 체계적인 서비스와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더욱 발전해 나아가는 시대가 될 것이다.



김은주

증평군자원봉사센터 운영부장

우리는 코로나19 이전 일상으로 갈 수 있을까? 항상 활기찼던 자원봉사 현장은 코로나19 발생한 이후 많은 것을 달라지게 만들었다. 자원봉사 활동 수요처인 공공시설과 복지시설은 코로나로 인해 장기 휴관이 되었고, 모든 비영리 단체는 모임과 대규모 행사를 중단해야만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인원 제한으로 대규모 봉사활동의 기회도 축소됐다. 무엇보다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봉사활동 참여를 주저하게 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팬데믹 상황에서도 자원봉사활동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었지만 실제로는 활동에 제약이 있어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증평군자원봉사종합센터 역시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자원봉사 활동률은 40%였으나 코로나19 이후의 활동률은 20%대로 절반을 줄여둔 상황이였다. 봉사활동은 사람을 대면해야 하는 상황이 많다 보니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서로 조심스러워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이전 자원봉사 활동보다 더 자유롭게 못해 위축과 경직되어 있었다.

하지만 2022년 코로나19와 함께 하는 일상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지난해 무조건 멈출 수밖에 없었던 봉사활동 현장들도 나름의 방식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준비했다. 멈출 수 없는 지역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자원봉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며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활동이 시작됐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옮겨갔으며,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의 지원 또한 비대면 자원봉사를 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다.

비대면 자원봉사 활동이란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장소에 모

여서 집합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다거나, 대상자를 직접 만나지 않도록 기획된 봉사활동을 의미한다. 자원봉사자가 본인이 가능한 시간에 짬을 내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이는 그동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어 자원봉사 참여가 어려웠던 시민들이 자원봉사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대면 자원봉사 활동의 공간 및 시간의 제약이 비대면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넓혀지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구애받지 않고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0년 자원봉사 활동 실태조사(2020. 한국자원봉사문화, 행안부)에 따르면 '기존 대면 활동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가 20% 감소하고, 온라인 또는 개인적 장소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10.2% 증가. 향후 비대면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참여 의향에 10명 중 8명이 있다.'고 비대면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참여 의향을 묻는 항목에서 79.7%가 긍정적인 답을 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자원봉사활동이 팀 단위, 대면 활동 위주로부터 개인 참여 및 비대면 활동으로 전환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증평군자원봉사종합센터도 2021년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대면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증평군은 2017년~2019년까지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비율은 높았으나 2020년부터 자원봉사 활동률이 낮아지고 있다. 이에 증평군자원봉사종합센터는 청소년의 봉사활동 체험과 경험 확대를 위해 비대면 자원봉사 활동 '재미있는 자원봉사 톡톡'을 기획하여 2021년 2월부터 현재까지 월 1회씩 총 500여 명의 청소년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 키트를 수령해 재택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예고 없이 찾아와 현재까지도 우리를 괴롭히고 언제 끝날지는 모르는 전염병이지만 이를 계기로 자원봉사 현장도 새로운 사회 흐름에 맞춰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능동적으로 그에 맞는 환경으로 기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도움이 필요한 곳 어디든 달려가 손발이 돼주는 자원봉사자들, 우리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해 자원봉사활동 현장에서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내년엔 다시 활기찬 활동이 이뤄질 자원봉사활동 현장을 기대한다.

현장의 목소리

2007년과 2022년의 15년 차이나는 아동보호현장



윤대현

충청북도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이들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2007년 3월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 처음 입사를 하며 배운 전화인사이자 기관의 슬로건이다. 사회복지자를 꿈꾸고 배워서 첫 직장으로, 첫 사회 속으로 한발을 내딛던 20대의 사회복지사는 15년이 지난 지금 40대의 사회복지사로 다시금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에서 근무를 이어나가고 있다.

처음 접했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현장이었다.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현장을 조사하여 학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사례관리부터 종결까지, 공공의 영역이

아닌 민간의 영역에서 상황에 따라 공공의 협조를 구해가며 사례를 조사하고 판단하고 관리하던 영역은 많은 어려움과 고민을 동반하는 자리였고, 당시 젊은 사회복지사는 3년을 채우지 못하고 결국 이직을 하게 됐다.

이직 후 교육지원청 산하인 Wee센터와 교육복지실을 거쳐, 지역복지재단 업무에 지역연계와 진로교육회사까지, 참으로 다양한 현장을 경험하며, 사회복지에 대해 보다 폭넓은 시각을 구축하게 됐다. 그리고 조금 다른 시각으로 사회복지 현장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필자의 고향지역인 진천에서 관할하는 '충청북도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개관 소식을 접하게 되어 현장에서 다시금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선물 받게 됐다.

15년 만에 돌아온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의 현장은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었다. 변화의 내용들은 해석하기에 따라, 현장에서 느끼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필자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매우 긍정적이고,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게 보이는 부분들이 많았다.

첫 번째로, 공무원과 경찰이 학대 현장에 함께 동행해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민간기관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고, 조사를 위한 각종 정보조회 및 가정방문에 대한 거부반응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소수의 인원으로만 정보조회에 대한 권한

이 주어졌으며, 가정에서는 "너희가 뭔데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등의 부정 반응도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공공영역에서 진행되는 것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대한 부담 완화 및 효율성 또한 매우 유리하게 되는 부분이며, 무엇보다 아동학대라는 영역에 대해 지자체와 경찰과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 큰 변화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전문교육 기회의 다양화이다. 이전에는 상담원 교육이라 하여 100시간(3주)의 교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외의 특성화 및 보수교육은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 이에 따라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제공되는 교육 이외에 3주라는 교육을 외부로 나가 참석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다양한 기법에 대한 교육과 100시간 교육 그 외의 직군별 교육 및 유관기관 합동교육까지, 주제별 직군별로 다양한 교육이 제공되고 있어 상담원으로서 종종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의 기회가 마련되는 등 현장에서 직원 역량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이자 가장 크게 느껴지는 변화는 지자체, 경찰, 교육기관 등이 다함께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보여준다는 부분이다. 15년 전에는 아동에 대한 조사 및 사례관리에 있어 다소 민감

한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공공기관 등이 비협조적인 모습에 지치는 일도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함께 풀어가야 하는 문제들에 유관기관 사례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무엇보다 사례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모두가 내 일처럼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지금의 분위기는 제가 느끼는 현장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한다.

아동학대 관련한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으로 돌아온지 어느덧 8개월이 지났다. 누군가에게는 얼마 안되는 기간일 수 있겠지만, 15년만에 돌아온 현장에서의 8개월은 필자에게는 하루하루가 새롭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분 좋은 날들을 보내고 있다. 때로는 만나는 내담자들이 이해가 가지 않아 힘이 들 때도 있고, 업무의 한계에 답답함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무엇보다 아동학대로 힘들어하고 있는 현장의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이제는 혼자만 아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에 매일이 기대되고 가슴 벅찬 시작을 경험하고 있다.

처음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근무했던 15년전의 외침처럼 아이들의 희망이 되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날을 꿈꾸며 오늘도 아동학대 현장으로 나간다.

똑똑똑! 법률상담 서비스입니다.

취약계층 법률상담 서비스 법률상담 서비스 법률상담 서비스

법률상담 서비스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제도'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내용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 지원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

채권·채무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이혼·친권·양육권 생활법률 전반

신청방법

시 간 월~금 10:00~17:00(공휴일 제외)  
전 화 043-238-0843  
사무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0호



이달의 법률상식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신인경 변호사 (법무부 인권구조과)

Q 남편이 얼마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망하기 전에 은행으로부터 채무 지급을 구하는 독촉장을 여러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채무도 상속인들에게 상속된다고 하는데, 저와 제 아들이 위 채무를 상속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재산과 빚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는데 혹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 우선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내역을 잘 모를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조희 결과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여야 피상속인의 빚을 물려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재산과 채무에 대한 상속권을 모두 포기하는 것이며, 한정승인은 상속 받을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는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되고, 가장 마지막 상속인인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위 상속채무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순위 법정상속인 중 최소한 1인이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더 이상 후순위의 상속인에게 위 상속채무가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은 한정승인을 하고 아들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상속채무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으면서도 상속인 역시 상속채무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인사동정

주민복지전문가 김완식, 국민의힘 청주시의원 당선



김완식 청주시의원

前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 자문위원인 김완식 의원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청주시의원(다선거구/영은·용암1동)으로 당선됐다.

김완식 의원은 충북대학교 법무대학원(석사) 법학과를 졸업해 청주시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서원구 수곡2동장 등 32여 년의 공직생활을 해왔다. 이후 지역 내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홀트아동복지회 청주연락사무소장,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 충청북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행위원 등을 역임했다. 김 의원은 32여 년의 공직 경험과 다양한 사회복지 활동을 바탕으로 항상 주민의 눈높이에서 함께하고 주민들과 약속한 모든 것을 열심히 지키며 청주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시의원이 되고자 한다. 김 의원은 "주민복지전문가로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기업을 유치해 협동조합형 일자리를 창출, 주민편의시설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민

고 선택해주신 시민의 뜻에 보답하고자 더욱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열심히 달리는 지역의 참된 심부름꾼이 되겠다"는 당선 소감을 밝혔다.

-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조임란 / 8월 1일자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충북지회 >회장 김태순 / 8월 1일자

복지정보 제공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 2022 기본생활지원사업(보육, 학습, 의료, 주거)
■ 사업기간: 상시모집
■ 지원대상: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저상위, 수급, 일반저소득)
■ 지원내용: 보육비, 학습비, 의료비, 주거비
■ 신청방법: 사회복지 관련 기관을 통한 신청(대상자 사례관리가 가능한 사회복지유관기관으로 지역복지관,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학교, 병원 사회사업팀 등)
■ 문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 043-256-4493

[여승사회복지재단] 제28차 늘푸름 도서지원사업 공모 안내
■ 지원대상: 전국 지역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생활시설 및 기타
■ 지원내용: 아동도서(약 300만원 상당), 아동독서력측정검사
■ 신청기간: ~2022.9.14.(수) 24:00까지
■ 신청방법: 본 재단 홈페이지(www.yeosong.kr)접수(우편, 이메일 불가) '기관 회원 로그인' → 지원신청 → 늘푸름 도서지원
■ 선정결과 발표: 2022.10.5.(수)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고
■ 문의: 02-553-3488

[기아대책 기대플러스] 기아대책 위기가정긴급지원사업 희망동지
■ 사업기간: 상시모집
■ 사업대상 및 기준: 아동을 포함한 가정 중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으로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신청방법: 사회복지 관련 기관을 통한 신청(대상자 사례관리가 가능한 사회복지유관기관으로 지역복지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학교, 병원 사회복지실 등)
■ 지원기준: 아동을 포함한 가정의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처한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으로 기준에 충족하는 가구
■ 지원내용: 생계비(최대 600만원), 의료비(최대 1,000만원), 주거비(최대 500만원), 교육비(최대 300만원), 심리정서치료비(최대 10회 기준)
■ 문의: 02-544-9544
■ 참고: https://hope.kfhi.or.kr/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 2022년 행복가득 워크 프로젝트 모집 공고
■ 모집대상: 물 이용·위생 환경 개선이 필요한 주거 취약계층(2022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가구)
■ 지원내용: 물 이용 공간 개보수(노후 주방 또는 욕실), 녹물·수입 개선(수도배관, 수압펌프), 욕의수전 이전설치 노후 수전개설 등
■ 신청기간: 2022.8.12.(금)~9.9.(금)
■ 신청방법: https://www.kwater.or.kr/danbitoktok/kor/do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후 신청서제출
■ 서류접수: ~2022.9.9.(금)
■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9월 중
■ 선정자발표: 10월 중
■ 시공: 10월~12월 중
■ 문의: 063-255-0479

[사단법인 함께하는 사랑방] 아동·청소년 생계비, 장학금 지원 사업 안내
■ 접수기간: ~2022년 12월까지 상시 접수
■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초·중·고등학교)
■ 지원기간: 2022년 9월부터(1년간)
■ 지원조건: 해당년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신청기관: 사회복지관에 한함
■ 신청지역: 충남, 세종, 인천, 충북, 제주, 강원지역에 한함
■ 신청방법: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및 제출서류 E-mail(srbat123@withgo.kr) 제출
■ 대상선정: 서류 심사, 심의 후 선정
■ 참고: https://www.withgo.or.kr/index.do

[밀알복지재단] 장애아동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지원내용: 장애아동 수술비 지원(최대 500만원), 재활치료 및 의료 소모품 지원(최대 240만원)
■ 지원대상: 19세 이하 장애아동·청소년
■ 신청방법: 밀알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miral.org/) 접수 후 신청서 등 작성 및 이메일 제출
■ 모집기간: 상시접수(해당 지역별 사업기관 리스트 참고)
■ 문의: 070-7462-9135

자원 봉사자 모집

- ▶ 돌봄교실 봉사자 모집
 관리센터: 청주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8.1~9.30
 전화번호: 043-266-4761
- ▶ 영상제작 미디어교육 보조 봉사
 관리센터: 음성군수어용역센터
 활동기간: 8.1~9.30
 전화번호: 043-883-2330
- ▶ 아동방과후교실 프로그램 보조
 관리센터: 서부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8.1~9.30
 전화번호: 043-236-3600
- ▶ 시각장애인 활동지원
 관리센터: 충주성심맹아원
 활동기간: 8.1~9.30
 전화번호: 043-843-1432

- ▶ 점자도서 워드입력 봉사
 관리센터: 무지개도서관
 활동기간: 8.1~9.30
 전화번호: 043-237-5544
- ▶ 스마트기기 사용법 안내 상담
 관리센터: 청주가경노인복지관
 활동기간: 8.1~9.30
 전화번호: 043-236-0111
- ▶ 주방봉사(설거지)
 관리센터: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활동기간: 8.1~9.30
 전화번호: 043-275-7411
- ▶ 행정업무보조 봉사
 관리센터: 음성군노인복지관
 활동기간: 8.1~9.30
 전화번호: 043-883-2470

- ▶ 배식봉사자 모집
 관리센터: 제천시실버복지관
 활동기간: 8.1~9.30
 전화번호: 043-651-4568
  - ▶ 학습정서 멘토링 봉사자 모집
 관리센터: 충주시가족센터
 활동기간: 8.1~9.30
 전화번호: 043-857-5960
-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연중  
 전화번호: 043-234-0840~2  
 \*자료출처: www.vms.or.kr

지역사회봉사단

재능나눔연합봉사단, 저소득가정 아동위한 봉사활동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 소속 재능나눔연합봉사단(단장 김영준)은 지난 7월 27

일 세종시에 위치한 기부식품등중양 물류센터에서 저소득가정 아동을 위한 물품 준비 작업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재능나눔연합봉사단은 2019년 12월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봉사단으로 위촉되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김영준 단장은 "저소득가정 아동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고, 앞으로도 신규 수요처 연계 요청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사회봉사단은 VMS에 가입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봉사활동이 가능하다. 지역사회봉사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단체는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유선(043-234-0840~2) 또는 이메일(cbswin1004@naver.com)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응원합니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가능!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19세 ~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더라도 보증금 월세 합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지원 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추가급여수급제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추가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지원 기간**  
신청기간: 2022.8.22(월)부터 1년간  
지급기간: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소득·재산기준**  
- 소득: 원가구 총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총위소득 60% 이하  
- 재산: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존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복지포털(www.bokjiro.go.kr) 혹은 어플리케이션  
②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사전 문의: 복지포(www.bokjiro.go.kr),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복지만평

보이지 않는 손

이창신 www.bokmani.com



경제위기가 심각한 수준



코로나가 다시 심각한 수준